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하얼빈공정대학교
파견기간	2019. 3 .2 . ~ 2019.12. 29.
프로그램	정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입학통지서가 오고 서야 교환학생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유학생 보험은 입학허가서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았다. 비자 만들 때가 조금 번거로웠다. 나는 비자를 충북대학교 개신 문화관 안에 있는 여행사에서 준비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8만 원 정도 냈던 것 같다. 내가 받은 비자가 X1자다. 근데 나는 1년 동안 중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도착하면 이걸 쓸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중국에서 새로운 거류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거류증을 4월 초쯤 만들면서 중국은행 카드를 개설하였다. 항공권은 남방 항공을 이용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겨울에 하얼빈을 갔기 때문에 겨울 옷을 많이 가져갔다. 그리고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용 약, 드라이기, 고데기, 중국어 책, 가방, 신발 등등 가져갔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샴푸, 린스, 드라이기 등등 지금 생각하면 중국에도 한국처럼 물건 있을 거다 있기 때문에 짐을 최대한 줄이고 현지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짐은 대부분 옷이었던 것 같다. 여성 경우 예민하면 생리대 한국 꺼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친구, 외국 친구들에게 줄 선물 가져오면 될 것 같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내가 간 곳은 중국 하얼빈이고 중국어 표준어, 동북 방언을 쓴다. 물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 싸긴 하지만 한국이랑 비슷하다. 그 중에서 특히 교통비 때문에 놀랐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버스는 약 1000원이 넘는데 중국은 약 2위안(약 336원)만 내면 된다. 택시비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한국보다 훨씬 싸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나는 중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패스트푸드점과 영화관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안 치운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따로 있어서 매니저가 직접 치운다. 처음에는 치우는 것이 습관이 돼있어서 어색했는데 이제 나름 적응도 되었고 은근히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많은 화장실을 가봤지만 휴지 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휴대용 휴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우선 단순히 말하자면 더운 것보단 추운 것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있고,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얼빈은 비교적 발음이 깨끗하고 표준적이고, 특히 하얼빈공정대는 하얼빈 안에서도 알아주는 학교이며 많은 국제 유학생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들었기에 선택하게 되었다.

시험은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있다. 중간고사가 없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중간고사는 한위비싸이(중국어대회)라는 연극으로 대체한다.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다. 중국어가 많이 늘었고 친구들과 돈독해졌다. 나는 1,2학기 전부 연극을 했는데 각 학기 모두 2등을 했다.

나-2. 공항 - 학교

하얼빈 국제 타이핑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은근히 멀리 있기 때문에 만약 학교에서 출발하면 2~3시간 전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것, 두 번째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국제공항에서 기다리면 국내선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국내선 공항에 도착하면 3호선 버스를 20위안 구입하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인데 택시비는 100위안~150위안 정도 나온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따로 없고 개강하기 전에 일주일 기간을 줘서 본인 실력에 맞는 반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분반 시험이 있긴 한데 필수는 아닌데 본인이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수업은 총 A/A+/B1/B2/C/C+/D1/D2/E/F 반이 있고 A/B는 기초반 C~D 반은 중급 반(HSK3~4급), E~F 반은 고급반(HSK5~6급)이다.

1학기 때 내 실력이 HSK4~5급 정도 수준이라는 생각을 해서 D2를 선택했고 종합, 듣기, 작문, 문법, 말하기, 독해를 배웠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중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서 F 반을 선택했다. F 반에서는 그 외에 반과 달리 토론식, 말하기 식 수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 달랐다. 나는 말하기 실력이 제일 부족했는데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그리고 F 반에서는 종합, 신문 듣기, 말하기, 독해, 중국 개황을 배웠고 중국 개황이라는 과목이 추가되었는데 이 과목은 중국의 인구, 경제, 민족, 문화 등을 배운다. 하얼빈 공정 대학교가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잘 돼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나-4. 기숙사

기숙사는 총 2개가 있는데 30동 기숙사, 외전 유학생 기숙사가 있다. 유학생 경우 거의 외전 유학생 기숙사로 배치를 하고 1인실인데 너무 늦게 오거나 하면 방이 차서 2인 1실인

곳에 배치될 수도 있어서 1인실을 원하면 일찍 오는 것을 추천한다.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는 얼굴 인식을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1인실은 혼자 쓰기에 적당하다! 그리고 기숙사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쓰고 남자 여자같이 살아서 조금 놀랐었고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전하다. 기숙사 1층 왼쪽에는 매점이 있고 웬만한 먹을 것은 다 있다. 매점에 갔는데 한국 소주를 봤고 컵라면도 있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러시아, 태국, 중국 등 다양한 과자와 라면들이 있다. 기숙사 오른쪽으로 가면 델리 하우스라는 식당이 있다. 처음에 기숙사에 왔을 때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다. 델리 하우스에 있는 음식은 웬만하면 사람들 입맛에 다 맞을 것 같다. 스테이크, 스파게티, 샐러드, 덮밥, 피자 등이 있다. 그리고 1층 제외 각층마다 주방이 있고 아주머니들이 매일매일 기숙사를 청소해 주셔서 청결하고 깨끗하다.

나-4. 교내 · 외 활동 : 교내 활동이라고 해야 할지 교외 활동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태국의 송끄란 축제를 체험했고, 한중교류회도 했다. 한중교류회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팀을 나누어서 단어 맞추기 게임하고 장기자랑도 했다. 나는 별생각 없이 참여했는데 막상 하니깐 재미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 3조가 1등을 했었다! 한중교류회 덕분에 중국인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어학당 수업이기 때문에 본과생들이랑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중국에 왔지만 중국인들이랑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외국인들과 중국어로 얘기를 많이 나눈다. 그리고 교류회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도 봐서 신기했다. 내가 너무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5. 꿀 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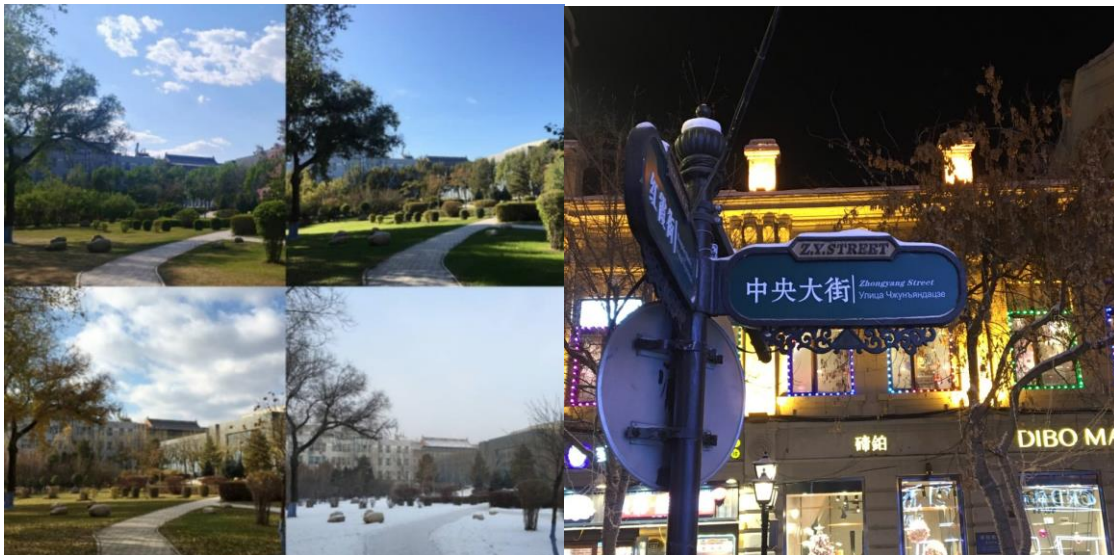
1년 동안의 하얼빈 생활은 너무 만족스러웠다. 하얼빈공정대는 오전에 수업이 모두 끝난다. 그래서 오후에 놀러 가거나 쉴 수 있다. 대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적응이 되면 할만하다. 그리고 공정대 안에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 모두 맛있다. 특히 마오 차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학교 내 11공위 쪽에 있으니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얼빈 공정 대가 워낙 크다 보니 학교 안에 귀여운 작은 셔틀버스가 다닌다. 버스 비용은 1학기 때는 1위안이었는데 가격이 올랐다. 현금은 2위안, 학생카드로는 1.2위안이다. 언제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자세한 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곳까지 걸어서 가면 약 30분 정도 걸린다. 근데 적응하다 보면 약 15분에서 20분 내에 도착한다. 셔틀버스 타고 가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다. 가끔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엄청 편하다! 그리고 하얼빈공정대는 학교가 너무 예쁘다. 원래도 건물이 너무 예쁘다. 원래도 건물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하얼빈 안에 있는 다른 학교를 보다가 우리 학교를 보니깐 정말 예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얼빈 날씨 같은 경우는 3월부터 5월까지의 한국 날씨와 비슷하다. 6월은 좀 덥긴 한데 한국보단 덥지 않은 정도이다. 9월에서 10월에는 조금 덥긴 한데 11월부터는 쌀쌀해 지기 시

작하고 11월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12월에는 정말 영하 약 20 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꼭 하얼빈 빙등제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에서 12월 말쯤에 무료로 셔틀버스 통해서 빙등제에 데려다 준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구경할 수 있어서 빨리빨리 봐야 한다. 날씨가 정말…… 추우니 따뜻하게 가야 한다.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학교사진]



[하얼빈의 4계절]

[중앙대가]



[중앙대가]

[빙등제]



